

성경 연구

1월 4일 교훈

의로움으로 깨우침

핵심 구절: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사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라”
요한일서 1:8,9

선별된 성경 구절:
요한일서 1:5-10; 2:1-8

이 서신은 학자들에 의해 서기 9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때까지 기독교는 상당한 영향력을 얻었으며, 신자들은 이방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많은 요소들이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독교와 자신들의 이교 철학을 결합하려 했고, 많은 이들이 소위 '기독교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거짓으로 지식이라 칭하는 것들에 반대하는 사상"이라고 경고했다. 디모데전서 6:20

요한의 서신은 이러한 철학자들의 파괴적인 가르침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쓰여졌다. 그는 그들에게 예수와 사도들의 교리만을 굳게 붙잡고, 이러한 철학적인 가르침들을 거짓으로 여기라고 권면하였다(). 모든 그러한 거짓 교사들은 사도 요한이 "지금도" 세상에 있다고 경고한 "많은 적그리스도들", 즉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의 대표자로 여겨져야 했다(요한일서 2:18).

요한이 이 서신을 쓴 목적은 그들을 의로움으로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어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2:12-14

이 글을 쓸 당시 사도 요한은 매우 연로하셨다. 그는 경험으로 인해 성품이 매우 온화해져서 믿음에 성숙한 자와 새로 믿은 자 모두에게 매우 다정하게 말씀하셨다. 그는 그들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져야 할 중대한 책임을 깨닫기를 원하셨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화와 축복의 충만함을 결코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교리의 기초 원리들에 만족하며, 마치 "유아"처럼 희생과 섬김 안에서 이 원리들을 완전히 발전시키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3:1). 요한은 신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자극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특권을 깨닫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때부터, 이것이 요한의 증언이었다. (요한일서 1:1). 그와 다른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을 목격했으며, 부활 후에도 그를 보았고, 이 모든 것이 진실임을 알았다. 사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었다. 빌립보서 3:8

그리스도 신앙의 근거가 되는 증언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통해, 그다음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시기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 사람이 한 증언은 들을 가치가 없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알았기에 우리는 그들의
확실한 증언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들의 “증언은
참되다.” 요한복음 21:24